자연에 꽃이 피기 시작한 어느 날 **10** 월 감비아 소식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감비아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올 해 만큼 많은 비가 내린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기가 끝날 시점이지만 우기 만큼은 아니지만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기마다 울부짖는 개구리 울음 소리에 밤 잠을 설칠때도 많았는데 올해는 개구리 울음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고 달팽이 마저 작년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감비아가 공장이 있어서 공해가 있는 지역도 아닌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살만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팔에 흘러 내리는 땀으로 숨을 허덕일 때도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꽃을 피우고 모기는 끊임없이 사람을 공격하여 피를 얻어가고 끝없이 울어대는 새 소리와 풀 벌레 소리에 듣는 귀는 행복과 공해에 시달려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져도 가장 귀중한 일은 이 땅에 복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 길이 열린 공간처럼 앞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닫힌 공간처럼 더 어두운 그림자가 덮일 때가 더 많아 걱정입니다.

섬기는 교회들 이야기

지난 몇 달간은 격동의 시기 였습니다. 아부코 교회는 ’모두 칸데 ‘ 목사 중심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청소년과 주일학교를 담당했던 ’키스마‘ 형제의 갑작스런 감비아 탈출, 그 이야기는 결혼하기 위해 몇 년을 걸쳐서 저축하여 돈을 모았지만 이곳 실상은 형이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는 구조라 모든 돈을 형 집 공사에 주었고 정작 본인의 결혼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은 **3** 년만 카타르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감비아 떠나 지금 카타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카디‘ 사모와 지금까지 훈련받은 형제들이 맡고 있어서 별 어려움은 없고 ’ 키스마‘ 형제가 떠난 후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번 여름에 마리아마 쿤다 주일학교와 연합 성경 캠프를 하였습니다.

마리아마쿤다 교회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입니다.

지난 저희들이 아이들 만나러 미국을 방문한 기간에 ’조셉‘ 전도사가 세네갈을 잠시 다녀 온다고 하면서 떠난 뒤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결혼 전 부인될 자매의 임신 사건입니다. 이 문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감비아에서는 결혼 성사는 여자에게 지급할 지참금을 지급하면 그때부터 자기 부인입니다.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하는데 돈이 필요하기에 결혼 전 함께 살면서 돈이 모아지면 결혼식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사역자이기에 본인이 마음에 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었고 목사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쉽지 않아서 일단 벗어나기 위해 교회를 떠난 것이 도리어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아부코 교회에 출석하면서 ’모두 칸테 ‘ 목사

지도하에 근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리아마쿤다 교회는 '파비' 형제가 당분간 감당하고 있지만 어떤 판단이 교회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인지 기도하면서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기타 방송국 사역이나 여러 사역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지개 유치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입생 모집 광고도 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신입생 모집은 몇 시간에 인원이 채워졌지만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밀려오는 항의와 정식적인 공고도 없이 신입생 모집했다고 동네 사람들의 항의에 그냥 아무 해답도 주지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면서 개원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미국에 잠시 방문하여 아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이들 만나면서 부모로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릴 때 혼자 학교를 보냈었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은 떠나보낼 때 어린 아이들이 아닌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밥 한 끼도 해 주지 못하고 그 어렵고 힘든 대학 생활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뒤에서 기도만 한 것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여 고개를 들 수 가 없었습니다. 그 힘든 과정들을 이야기 들을 때 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도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자원들인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 앞으로 좀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자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것은 마음에 불과하지 실천할 수 있은 방법은 없기에 큰 아이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빨리 은퇴하여 가족이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마음에 먹먹하기만 합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이유들로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때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선교의 사명은 끝이 납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주어진 일에 힘을 내어 봅니다.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제목은

1> 사역자들이 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2> 조셉 전도사가 잘 치유가 되고 사역에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3> 청소년 및 주일학교가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4> 세계 경제 위기가 현실적으로 선교지에 그대로 나타나는대 위축되지 않고 주어 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5> 가족들이 각자 위치에서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 위기가 닥친다 해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처럼 인내가 쉽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본질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022 년 **10** 월 **11** 일

작은 나라 작은 동네 망고 그늘 아래에서

김일수 최성애 선교사 드립니다.